

종립학교를 가다

(16) 동해중학교

1972년 원정성사가 창종한 불교종지종은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훬'을 본준으로 하며 대승장엄보경, 대일경 등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밀교종단이다. 부산 동해중학교는 바로 불교종지종의 유일한 종립학교다.

종수지리적으로 인재양성의 고장으로 알려진 부산 온천장. 금정산이 마주 보이는 조그마한 구릉위에 위치한 동해중학교는 1968년 정각사 신도였던 박영석 대동병원장의 발심으로 설립되어 88년 종단이 인수해 인재양성을 위해 전격하고 있다.



◇부석사 총무 도문스님이 무량수전 앞에서 참가자들에게 무량수전의 건축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량수전 올라 빼어난 건축미 감상

본사 9월 지역불교 문화기행 40명 참가

"용문사는 회전식 불경보관대인 윤장대가 있는 유서깊은 고찰입니다. 9월23일 예천 용문사법당 안에서 주지 청안 스님이 용문사의 역사와 문화재를 설명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한 지역불교 문화기행 참가자 40명은 스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빼놓을 세라 열심히 적으면서 경청했다. 이에 앞서 참가자들은 무량수전 등 국보급 문화재가 즐비한 부석사를 참배해 예쁨도 드렸다. 이어 돌아오는 길에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방문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안동 봉정사를 방문했다. 조규욱(48)씨는 "신라와 고려 등 각 시대 건축물이 도열해 있는 봉정사에 오니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것 같다"고 즐거워 했다. 김주일 기자

소학급제 운영... "교실이 즐거워요"

"교육불사 아낌없이 지원"



총지종 해암 총리원장

"불교종지종은 교육불사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종조님의 유지이기도 하지만 젊은 정보리들은 불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

다." 청소년 포교가 종단의 운영과도 깊다고 생각하는 해암 불교종지종 총리원장은 매년 7월 동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종단의 이같은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수련대회를 통해서 호연지기,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배운다. 또 선 후배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종단 교무들과 친해져서 종단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불교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련대회를 전교생이 참석하는 수련대회로 확대시켜 나갈 생각이다.

그는 또 밀교를 이해하는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종단에서 발행하는 종립학교 종교교재를 발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계적인 불교 교양과 밀교의 특성을 가르치고 싶어서다. 더불어 동해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푸른 꿈 갖도록 도와"



동해중 강경중 교장

청소년은 꿈이 있어야 하고 꿈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동해중학교 강경중 교장은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꿈은 맑고 피와 눈물의 결실로 열실로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화합을 강조하듯 학교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도 교직원과 학생 등 학교 제 주체들간의 화합이 필수적입니다. 서로간에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레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교육으로 이어지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강 교장은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는 동해중학교의 교육목표는 이같은 화합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두눈은 푸른하늘을 응시하면서 두 발은 땅을 굳게 짚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자는 말을 자주 하는 강 교장은 불교 청소년 운동에 관심이 많다. 78년 해운대중학교에 부임해 불교학생회를 만들었고 88년 한국방송대학 부산교육원 불교학생회를 창립해 지금까지 지도법사로 활동중이다.

동해중학교 선생님들은 동해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하나같이 '소집단 반 활동을 통한 즐거운 교실'이라고 말한다. 이는 학급 안에 학생 8명을 기준으로 또 다른 4-5개의 소 학급을 운영, 학생들에게 공동체의식과 협동생활태도를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소 학급 활동을 통해 반장, 부반장, 도서, 미화, 체육, 오락 위원 등의 임무를 맡아 협동심을 함양하는 한편 다른 소 학급과의 자율경쟁을 통해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96년 교육부 주최 전국 학교현장 교육 개혁 우수사례 발표와 97년 부산 교육청 지정 수준별 교육과정 시범발표에 소개되면서 교육관계자들로부터 격찬을 받기도 했다.

최근 입시제도의 변화로 동해중학교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각 학급



◇동해중학교는 소집단 활동, 칭찬하기 등 특색사업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충북 과산에서 열린 수련대회 모습

68년 설립 총지종 소속

학부모 독서교실 운영

에 문고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독서감상문 쓰기를 생활화 해 모범 학생들을 시상하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해중학교의 자랑이다. 학부모들로 조직된 어머니 독서반은 학생들과 똑같이 독서 감상문 쓰기와 독후감 발표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자녀들이 책 읽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고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인지 동해중학교 학생들은 1년에 학생 1인당 평균 40권의 책을 읽는 등 독서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넓은 이해심과 아량을 갖게 하고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독서

자율정신·협동심 길러

장점 칭찬하기 눈길

받은 또 책 수집운동을 펼쳐 집에 묵혀 둔 책을 수집해 학급문고에 기증하고 심시일만 모금을 해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등 학생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칭찬하기 프로그램도 동해중학교만의 특색. 입시를 최종 목적으로 여겨온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인성교육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해중학교에서는 칭찬하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있다. 국어 시간을 통해 운영되는 칭찬하기는 한 가지 주제로 놓고 그 주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그 후 그 학생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주는 것.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칭찬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진다. 칭찬하기 프로그램

'모듬북 연주' 지역사회 명물

동이리 탐방 동해 풍물패

동해중학교에는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일반교과뿐만 아니라 예체능분야 등 25개 분야에 걸쳐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동아리는 바로 동해 풍물패. 지방무형문화재 전수자인 김상현씨 등 외부 전문강사 2명이 지도하는 동해풍물패는 초보자반과 고급자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회원만도 60명이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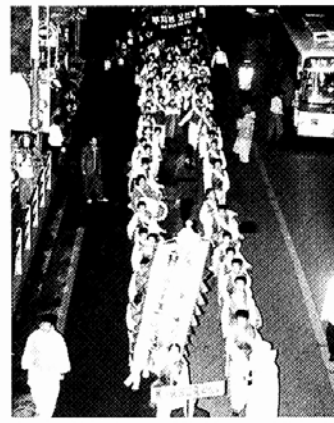
은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좋은 영향 제다.

그 외에도 생활일기 쓰기, 인사 잡하기, 기본 예절 지키기, 1인 1선 실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고 있다.

건강이념 구현을 위한 신행 활동 역시 활발하다.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불교반을 중심으로 종단주최 수련회, 부처님오신날 행사 등의 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불우이웃들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정각사 학생회에 참석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서 신심을 키우고 있다.

8177㎡ 대지 위에 24개의 정규교실과 컴퓨터실, 예절실, 교육정보실 등 11개의 특별교실, 운동장 등 최신 시설을 갖춘 동해중학교에는 현재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891명의 정보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책과 씨름을 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nia.com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⑧



•수인법•

선무의 기초를 어느 정도 훈련한 다음에는 수인법을 연습해야 한다. 수인법은 불보살들의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것이다. 불보살의 여러 가지 손동작들은 비밀스런 진리의 상징으로서

되고 정지하는 동작들을 훈련한다.

조화를 이룬 수인법의 동작들은 음양의 원리에 따라 손과 팔로써 훈련된다. 수인법의 복잡한 조화와 변형을 익힌 후

에, 다음 단계로 다리와 함께 연습하고, 다시 온 몸을 움직여 연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진리 상징하는 손동작

몸의 균형 조화 이루게

선무 연습에 있어 수인법의 훈련은 필수적이다. 이 수인법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주인공 '이뤄프'와 함께 빠르고 느림, 높고 낮음, 넓고 좁음, 혹은

이러한 즉흥적이고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인법을 사용하여 전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단순한 동작에서 이중적, 삼중적, 복합적 조화의 변형을 훈련해 나아가야 한다.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 (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된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